**마두관음상**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 관음보살 중에서 유일하게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두관음입니다. 말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말이 풀을 먹고 물을 다 마셔버리는 것처럼, 마두관음은 중생이 품고 있는 현세의 욕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조리 먹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 8개 중에서 5개는 길운을 상징하는 도구 즉, 도끼, 검, 염주, 법의 지팡이, 법륜을 들고 있으며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구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두관음상은 얼굴이 3면이나, 이 불상은 뒤편에도 얼굴이 있어, 총 4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두관음상은 목조 불상으로 높이는 503cm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마두관음상은 비교적 보기 드물며 일본에 현존하는 마두관음상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큽니다. 제작 시기는 1130년 전후로 추정됩니다. 불상 앞에는 교통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이 놓여 있습니다. 마두관음은 가축의 수호와 동시에 안전한 여행과 순산 기원에 효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